

신임 특허청장에 이수원 전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장

신임 특허청장에 이수원 전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장이 임명됐다. 강화도 화천 출신인 신임 이수원 특허청장은 춘천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23회)를 거쳐 기획예산처 기획총괄과장과 재정운용기획관,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이수원 신임 청장은 지난해 1월부터 비상경제상황실장을 맡아오며 경제 회복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춘천고
고려대 경영학과
일본 사이타마대 정책과학대학원
행시 23회
기획예산처 기획총괄과장, 산업재정기획단장, 재정운용기획관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대통령 비상경제상황실장 겸 총괄거시팀장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 본격 추진

제2차 한-UAE 경제 공동위 열려

특허청은 지난 5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UAE 경제 공동위에서 UAE 지식재산국과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공동위에서 특허청과 UAE 지식재산국은 국제사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수립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허청은 한국형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특허넷) 구축 경험, 특허선진 5개국(IP5 Offices)의 일원으로서 활동 경험 및 선진화된 심사관 교육 시스템을 UAE측에 소개하였고, UAE 지식재산국은 이러한 특허청의 경험 공유를 희망하면서 특허행정정보화 및 교육 분야의 협력 추진에 동의하였다.



지식재산 강소기업 육성으로 대일무역역조 잡는다!

첨단부품·소재 중소기업에 특허전략전문가 맞춤형 지원 추진

특허청은 부품·소재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R&D현장에 특허전략전문가를 파견하여 맞춤형 특허전략을 제시하는 '2010년 첨단 부품·소재산업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천억 원 이상 매출규모의 국내 우량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괴물(Patent Troll) 등 외국 선진기업으로부터 특허공세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재산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은 '특허권' 소송에 휘말려 해외 진출의 꿈이 좌절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사업은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시 특허 침해 소송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허전략을 수립해주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 특허 관련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아가 선점한 원천·핵심특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일본 등 선진국이 특허망을 촘촘히 구축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부품·소재 분야에서 지식재산(IP) 강소 기업을 육성하여 만성적인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R&D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올해는 총 사업비 70억 원 규모로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R&D 단계별(기획/수행/완료) 맞춤형 지재산 획득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R&D·IP 경력을 보유한 특허전략전문가¹⁾와 IP 경력 5년 이상의 연구원들로 구성된 IP-R&D 전략지원팀이 최장 4.5개월간 기업에 파견되어 기업 맞춤형 지재산 획득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현황, 사업환경 및 지재산동향의 진단·분석, 분석결과에 기초한 R&D단계별 지재산획득전략 수립, 수립된 전략에 따라 핵심·원천특허 등 해당 기업에 필요한 지재산 획득 업무를 수행한다.

'09년도에 시작된 이 사업은 작년 64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신규 IP획득전략(591건), 문제특허대응전략(595건), R&D 방향제시(247건)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해당기업의 특허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에 크게 기여하여 지원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1) 대기업·연구기관 등에서 R&D와 IP전략·관리 15년 이상 경험을 가진 전문가(공학박사, 변리사 등)

“특허, 브랜드, 디자인 모두 도와드립니다.”

지역 중소기업 브랜드·디자인 가치제고 사업 개시

특허청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브랜드·디자인 권리화 및 경영 지원을 위해 지역 밀착형 브랜드·디자인 가치제고 사업을 시작한다.

지역 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은 브랜드경영관련 교육, 상담 및 출원비용지원, 컨설팅,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등 브랜드경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디자인 가치제고 사업은 디자인경영관련 교육, 컨퍼런스 개최, 출원비용지원, 맞춤형 디자인맵,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지원 등 디자인경영 전반에 걸쳐 수준별 진단과 함께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대전, 충북(청주), 전북(전주), 전남(목포), 강원(원주)(이상 11개소)에 위치한 광역 지식재산센터에 실무경력 5년 이상의 브랜드(11명) 및 디자인(9명, 서울·제주 제외) 컨설턴트를 채용했다.

채용된 브랜드·디자인 컨설턴트들은 지역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권리화 상담과 더불어 브랜드·디자인경영 실태를 진단하고, 각 기업에 알맞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멘토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 특허청 지식재산권 보호노력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미국 무역대표부 발표 ‘지재권 감시대상국’ 2년 연속 제외

특허청은 지난 4월 3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발표한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한국이 2년 연속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시민단체, 기업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스페셜301조 보고서’에 지식재산권 침해국가에 대해 ‘우선감시대상국(PWL)’과 ‘감시대상국(WL)’을 발표

※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3개국이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새로 제외

발명인의 소중한 특허, 철통보안으로 지킨다

내부정보 유출방지 대폭 강화

특허청은 올해 미공개 특허 등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외주업체 보안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부정보 유출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한 해 200여 명에 달하는 외주 위탁업체 직원들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나누는 네트워크 분리를 확대하고, 더불어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특허청의 모든 정보화 운영위탁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 최초 제안요청단계부터 보안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위배 시에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일 「지식재산 인재육성 협력각서」 체결

한·일 지식재산연수원 간 업무협력에 합의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에 관한 인재 육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3일 일본 특허청에서 일본 지식재산 전문 교육기관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원”과 업무협력 조인식을 체결하였다.

양국 간 업무협력 조인식은 지난 2009년 12월 18일 한국 특허청에서 개최된 제21차 한·일 특허청장 회담에서 양국 특허청장이 지식재산 교육기관 간 업무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던 내용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 내용은 민간·교육기관·정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식재산 인재육성 프로그램, e-러닝 콘텐츠 및 교육 커리큘럼 등에 대한 정보 및 의견교환 뿐만 아니라 양국 연수원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안재현 원장은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 연수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선진 교육 기법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지재권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양국 간 지재권 교육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제공 특허청